

고린도전서 15 장 12 절-34 절: 죽은 사람의 부활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13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3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24 그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25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26 맨 마지막으로 멸망 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33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34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1. 고린도전서 15 장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두번째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 세번째는 '몸의 부활'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2. 12 절은 사도바울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하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딤후 2:17-18).
3. 13 절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 a.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면,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 b. 고린도전서 15 장 첫번째 부분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이 확인되었으니 죽은 사람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4. 14 절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될 것인데, 헛되다는 것은 아무 실체가 없고,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5. 15 절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것이 거짓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6. 16-17 절은 13-14 절과 비슷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도 가능하지 않기에,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 18 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죄사함이 없는 멸망으로 마치게 됨을 강조합니다.
8. 19 절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과 부활 이후에 대한 소망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잠시 경험하는 것에만 국한되게 되므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9. 20-22 절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 또 한사람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그가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이후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롬 8:29-30, 요 11:25-26).
10. 23-28 절은 부활에 관련된 순서를 설명합니다. (1)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2)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3)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악의 통치와 권력을 멸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원수 '죽음'이 멸망 받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11. 29 절은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행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30-31 절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무릅쓰고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사랑입니다(엡 5:26). 부활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벧전 4:12-14).
13. 32 절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19 장에 나타난 에베소에서 겪었던 소란에 관한 이야기인 듯합니다 (목장성경공부 영상 참조: 데메드리오 vs. 사도바울).
14. 33-34 절은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33 절에 '속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그 당시 극작가의 글을 인용하며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동무'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오늘날 있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주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기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동무가 될 때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자,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